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코로나19’ 위기 대응 I :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외
독일	베를린市, 헤센州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외

이탈리아	이탈리아(전국), 토스카나州
프랑스	파리市 외, 보르도市
부록	‘코로나19’ 관련 세계도시동향 기(既)게재원고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버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코로나19’ 위기 대응 I :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외	경제위기 극복·고용보장 등을 위한 긴급지원 시행	3
독일	베를린市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보조금 즉시 지급	7
	헤센州	상점 영업 재개 등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	10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외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협약’ 추진	13
이탈리아	이탈리아(전국)	취약계층에 보조금 및 바우처 지급	15
	토스카나州	노약자·장애인 대상 방문 의료·배달 서비스 시행	17
프랑스	파리市 외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1
	보르도市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배부	23

경제위기 극복·고용보장 등을 위한 긴급지원 시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 외 / 코로나19

네덜란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연한 봉쇄(intelligent lockdown) 정책을 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프리랜서, 기업 등에 지원금을 지급. 방역대책은 일종의 집단면역 모델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경제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2020년 5월 현재 네덜란드 누적 확진자 수는 4만여 명, 사망자 수는 5천여 명
 - 고위험군과 의료종사자 위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더 많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¹⁾
 - 네덜란드에서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고위험군
 - 7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당뇨, 신장 질환, 면역기능 장애 등)
 -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고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체장애가 있고 상당한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 및 전망

- 기획재정부는 2020년 한 해 네덜란드 GDP가 최소 1.2%에서 최대 7.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얼마나 장기화되는지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 예측
 - 시나리오 A: 코로나19가 올해 6월 내에 종식되어 관련 조치 완화 및 정상화
 - 시나리오 B: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6개월 이상 유지
 - 시나리오 C: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6개월 이상 유지되며 추가적인 문제 발생
 - 시나리오 D: 코로나19 및 관련 조치가 12개월 이상 유지

1) 한국이나 다른 국가처럼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현황으로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음

-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 A는 상황이 나아져 6월 이후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며, 이때 경제성장률은 1.2% 하락하고, 실업률은 4.0%가 될 것으로 예측
- 나머지 3개 시나리오는 모두 2008~2009 세계경제위기 때보다 타격이 클 전망
- 경제적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6개월간 조치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외에 다른 부정적인 상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 GDP는 7.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이 경우 2021년 경제성장률도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

그동안 시행한 방역대책

- 3월 15일부터 식당, 카페 등 외식 사업장의 영업을 제한. 포장 및 배달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사업장 내 취식은 불가
 - 합법적인 대마 판매처인 커피숍도 포장만 예외적으로 허용
 - 3월 23일부터 미용실, 네일샵, 메이크업샵도 영업 중단
 - 3월 24일부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장, 수영장, 사우나,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도 영업 중단
- 5월 20일까지 대학²⁾ 등 각급 학교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³⁾, 고등학교 졸업시험도 취소
 - 0~4세 유아들이 생활하는 보육시설은 정상 운영
 - 초등학교는 5월 11일부터 등교 가능. 다만 등교 인원을 소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수업일과 수업시간을 조정
- 의료 및 돌봄 직군, 운수 및 유통 종사자, 보안 및 위생 관련 종사자 등 필수 직군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재택근무 시행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필수 직군에 종사하고 있으면 추가 비용 없이 보육시설에 위탁 가능
-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 취소. 축구경기,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등도 모두 운영 중단
 - 문화예술계를 위해 지원금 3억 유로(약 4,000억 원)를 운용할 계획

2) 네덜란드는 6월 말에 한 학년이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학년 말까지 캠퍼스를 완전히 폐쇄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3) 암스테르담시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크롬북(태블릿PC) 3,000대를 확보하여 각급 학교에 배급

- 취소된 행사 티켓을 환불받는 대신 바우처로 전환하거나 기부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
- 최대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
 - 시내 대중교통 및 기차 등 광역 대중교통 모두 축소 운영
 - 일부 공원, 해안가, 캠핑장 등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폐쇄
- 실외에서 동행이 가능하거나 실내로 초대 가능한 인원은 최대 3명이며, 같은 집에 사는 구성원이 아니면 1.5m 거리 유지 의무 있음
 - 식료품점이나 생필품점에서는 장바구니 및 카트 사용 의무화
 - 이를 개인이나 사업장이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

지원대책

- 중앙정부는 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환경세, 보험세 등을 3개월간 납부 유예
 -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을 납부 유예
 - 연체 이자율도 기존 4%에서 0.01%로 완화
- 고용보장을 위한 긴급 지원(NOW)
 - 3개월 이상 매출액이 20%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 사업자가 신청 가능
 -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해고 없이 직원 임금을 100% 온전히 지급한다는 조건 하에 중앙정부가 최대 90%를 보전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금(Tozo)
 - 실거주지 및 법적 주거지가 네덜란드이며 18세 이상 성인, 연간 노동시간이 1,225시간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3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 최대 3개월 치를 지급
 - 최대 월 1,500유로(약 200만 원, 세후)를 지급하며, 재산규모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업종을 위한 일시 지원금(TOGS)
 - 외식 사업장을 포함하여 미용실, 타투 샵 등이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4,000유로(약 500만 원)를 1회 지급
 - Tozo와 중복 수령 가능
- 기업금융보증 확대 적용(BMKB)
 -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시행하고 있던 정책은 대출금의 최대 50%까지를 보증해주는 것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은 최대 90%, 대기업은 최대

80%를 보증

- 이자율도 기존 3.9%에서 2%로 하향 적용하며, 이를 위해 3천만 유로(약 400억 원)를 긴급 편성
- 암스테르담市는 코로나19 대책이나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거나 홍보하는 플랫폼 ‘Wij(We) Amsterdam’을 운영
 - 시민들이 서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장이 배달, 기부, 할인 등 비영리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음.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 혹은 사업장,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정책 평가

- 네덜란드는 방역 측면에서 유연한 봉쇄(intelligent lockdown) 정책을 택했는데, 이로 인해 일찍이 도시 전면봉쇄 조치를 시행한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음
 - 국내 여론 역시 정부의 대응이 늦었으며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
- 하지만 초기부터 경제위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지원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해 노트북 등을 빠르게 지원
 -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도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라고 평가받음

<https://www.rivm.nl/>

<https://www.cpb.nl/scenarios-coronacrisis>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coronacrisis-treft-economie/>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financiele-regelingen>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laptopactie/>

<https://www.rotterdam.nl/nieuws/regeling-uitvaarten/>

<https://www.rotterdam.nl/werken-leren/coronamaatregelen-rbz/>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보조금 즉시 지급

독일 베를린시 / 코로나19

독일 베를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등에 연방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2020년 5월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17만여 명, 사망자 수는 7천여 명
 - 유럽 내에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니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4월 20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700여 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
- 베를린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해 적은 편으로 평가

방역대책

- 공공기관 폐쇄 및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
 - 학교, 보육센터, 영화관, 박물관, 전시장, 술집, 클럽,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등의 운영 제한이 3월 10일부터 적용
 - 학교는 3월 16일부터 폐쇄되었으며, 의료인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종사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레스토랑 및 카페의 경우 초기에는 테이블 간격을 1.5m 이상 띄우는 것을 의무화했으나, 3월 22일부터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허용
 - 3월 23일부터는 야외에서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를 2회 연장
 - 초기에는 50명 미만 모임은 신고하면 열 수 있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 3월 23일부터는 2명으로 제한
 - 가족에 한해 2명 이상의 야외 동행이 가능하며, 병원 방문 및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과 강아지 산책 등에는 예외 적용
 - 외부 활동 시 타인과 1.5~2m가량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벤치 1.5m, 잔디밭 5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거나 동행인

수가 많은 경우 벌금 부과

- 행사 및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벌금 부과

○ 4월 말 市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코로나 규제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제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공공교통시설 이용 시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 마스크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천 마스크나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스카프를 착용한 경우에도 착용 의무를 지킨 것으로 간주
 - 市는 마스크를 조달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
- 800제곱미터 이하 상점의 영업 허가
 - 하지만 요식업 및 관광업 분야는 제한. 레스토랑과 카페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영업만 허용
- 사회적 접촉 금지 완화
 - 장례식 및 결혼식 등의 경우 4월 22일부터 2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5월 4일부터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최대 50명까지 모임 및 야외 행사 허용
- 일부 문화시설 개관 허용
 - 클럽, 극장, 오페라하우스 등의 실내공간은 7월 31일까지 폐쇄하나, 5월 4일부터 170여 개의 갤러리 및 미술관 개관 허용
 - 도서관은 도서대출 업무부터 허용하여 점차 허용범위를 넓힐 예정. 체육관 운영이나 팀 스포츠 활동은 여전히 제한되나 개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
 - 야외 공간인 동물원과 식물원은 행동규칙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개관
 - 하지만 10월 24일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며, 대규모 행사인 베를린마라톤대회(9월 27일 개최 예정) 또한 취소하는 것으로 발표

지원대책

○ 연방 보조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시행

-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절차를 최소화하여 보조금을 지원
- 사업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신청 조건
 - 사무실 임대료, 리스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0유로,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0유로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사장 등 임원급의 급여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회사명, 주소, 법인 유형, 세금 식별번호, 은행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신청 다음 날에 바로 지급
- 자국민과 외국인 구별 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전부 지원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23456.php>

<https://www.ibb.de/de/foerderprogramme/corona-zuschuss.html>

<https://www.bz-berlin.de/berlin/corona-krise-in-berlin-maskenpflicht-geschaefte-oeffnen-keine-grossveranstaltungen>

<https://www.bz-berlin.de/berlin/in-berlin-kommt-die-maskenpflicht-in-oeffentlichen-verkehrsmitteln>

<https://www.berlin.de/ba-neukoelln/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23403.php>

<https://www.berlin.de/ba-spandau/aktuelles/pressemitteilungen/2020/pressemitteilung.923062.php>

<https://www.berlin.de/polizei/polizeimeldungen/pressemitteilung.923064.php>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상점 영업 재개 등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

독일 헤센주 / 코로나19

독일 헤센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강력한 방역 기간 이후 단계별 등교, 상점 영업 재개 등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대중교통, 은행,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코로나19 출구전략’의 필요성 대두

- 독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엄격한 방역대책과 함께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회자
 - 헤센(Hesse)주는 자영업자와 예술인 및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감세혜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파산을 막고,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단체의 존속을 지원
 -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존에 대한 불안이 내재. 따라서 재정지원과 사회적·문화적 피해 보상을 넘어 각 분야의 ‘정상화’와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 연방 차원에서 시행한 접촉 금지 기간이 끝난 후의 조치에 대해 헤센주는 마스크 의무 착용제 도입 결정과 방역대책의 단계별 해제를 발표
 - 접촉 금지와 감염자 추적 앱 개발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대두
 - 출구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대화창구 열어두기를 추진

그동안 시행한 분야별 대책 및 출구전략

- 학교 수업 및 등교
 - 헤센주는 4월 16일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방침’ 발표
 - 4월 27일부터 단계별 등교 실시
 - 방역의 필요성을 고려해 클래스당 최대 15명 수업
 - 필요시 학급을 나누고 임시교사 배정
 - 4월 27일 1차 등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독일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이 마지막 학년), 실업학교 학생(5학년부터 해당), 인문계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의 11학년과 12학년(졸업하기 전 2년)
 - 실업학교 졸업시험을 5월에서 6월로 연기

- 올해 가을 수학여행은 취소, 견학 및 외부수업도 불가
- 교육 분야 방역대책 관련 교육노조 및 정당의 요청
 - 교육노조: 방역대책으로 학교마다 온수, 비누, 종이타월, 소독제 지원 요청
 - 州의회 사민당: 실업학교 무시험 졸업 요청
 - 좌파당: 낙제 없이 모두 승급 요청(독일엔 초·중등 교육과정 낙제제도가 있음)
- 문화예술 분야
 -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 취소
 -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 문화단체 등이 생존에 위협을 받음
 - 전체 문화예술인 중 고정월급이 없는 자유업자는 약 39%(전체 직업 중 자유업 비율은 약 10%)
 - 오프라인 행사 허용 검토
 - 州정부에서 100명 미만 행사 등은 허용 검토
 - 헤센州에 속해 있는 프랑크푸르트市에서는 10월 세계도서전시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반면 바이에른州는 10월 옥토버페스트를 취소한다고 발표
 - 州정부 지원정책
 - 헤센州 내 약 41,000개 공익단체(문화단체, 스포츠클럽, 취미모임, 극단, 이웃돌봄단체, 자연보호단체 등)의 존속을 위해 보조금 지급
 - 행사가 취소된 경우 항공료, 출연료 계약 혹은 지출 내역에 따라 보상. 모금이 계획된 행사일 경우 수입 결손 보상
 -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도 파산 방지와 생존을 위한 신속보조금 수령 가능
- 종교 분야
 - 접촉 금지 방역대책으로 현장예배 중단
 - 부활절 기간에도 모두 온라인 행사 진행
 -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 현장예배 재개 희망
 - 이와 관련해 4월 20일에 실시한 헤센 방송국 설문조사 결과 현장예배 재개를 응답자의 71.2%가 반대
- 보육과 노인돌봄 분야
 - 접촉 금지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출근하는 직종에 부모가 둘 다 종사할 때만 별도 보육 서비스 제공
 - 양로원에서 감염자가 생기자 헤센州는 양로원 방문 전격 금지
- 기타 일상생활 분야

- 4월 27일부터 개인상점 영업 재개
- 4월 27일부터 대중교통, 은행,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50유로(약 6만 원) 부과
 -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만으로 방역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고, 마스크 물량이 모자라므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음
 - 州정부는 상점 영업 허용 등으로 방역대책을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병행해 상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있음을 인정
 - 다만 기존의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은 계속 유지

<https://kultusministerium.hessen.de/schulsystem/aktuelle-informationen-zu-corona>

<https://www.hessenschau.de/politik/am-27-april-beginnt-der-corona-exit-an-hessens-schulen,corona-exit-schulen-bouffier-lorz-100.html>

<https://www.giessener-allgemeine.de/hessen/generelles-besuchsverbot-13637292.html>

https://wirtschaft.hessen.de/sites/default/files/media/hmwvl/richtlinie_soforthilfe_corona_in_hessen.pdf

<https://wirtschaft.hessen.de/wirtschaft/corona-info/foerdermittel-des-landes-hessen-der-corona-krise>

<https://www.haz.de/Hannover/Aus-der-Stadt/Corona-Pandemie-Diakonie-fordert-Aufhebung-des-Besuchs-verbots-in-Altenheimen>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협약’ 추진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외 / 코로나19

스페인 바르셀로나市에서는 호텔시설을 코로나19 감염자 치료 등을 위한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시 벌금을 부과. 또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책을 발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도시협약’을 추진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스페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현재 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음
- 바르셀로나市에서는 2월 말에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
 - 바르셀로나 호텔연합에서는 시내 여러 관광호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호텔을 병동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 市 보건부와 함께 ‘호텔 살룻(hotel salut)’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시내 호텔을 병동으로 사용

그동안 시행한 방역대책 및 대응책

- 스페인 중앙정부가 3월 14일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3월 15일부터 이동제한 명령 시행
 - 식료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금지하였고, 재택근무를 전면 시행
 - 이의 여파로 일시해고를 단행한 기업들이 속출
 - 누적 일시해고 노동자 수(바르셀로나市, 4월 중순 기준): 23만여 명
 - 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게 되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책 발표
- 이동제한 명령을 어길 시 벌금 부과
 - 반려동물 산책, 생필품 및 의약품 구입, 통근 이동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이를 어길 시 300유로에서 1,000유로까지 벌금 부과
- 아이들을 위한 플랫폼 ‘에스티맛 디아리’(Estimat Diari BCN) 운영
 - 이동제한 명령으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심각
 -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여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 만든 비디오를

공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들이 공유한 그림과 비디오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동제한 명령’이라는 주제로 책으로 만들어지고, 벽면에 공공미술로 설치되며, 중요 기록물로 시의회에 보관될 예정
- 아이들이 현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시장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메신저 계정을 마련
 - 메신저를 통해 도착한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이 직접 유튜브 등으로 답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도시협약’ 추진
 - 미증유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그룹 간의 협력이 필수적
 -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 등이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년 반 동안 지켜야 할 도시협약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예산 재조정, 요식업에 대한 세금의 탄력적 부과 등 타격이 큰 경제 분야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시사점

- 이동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이 시민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
-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https://dades.ajuntament.barcelona.cat/seguiment-covid19-bcn/>

<https://www.aspb.cat/docs/COVID19aldiaBCN/>

<http://www.aisbcn.cat/mapa-covid-19-situacio-instantania-bcn/>

<https://ajuntament.barcelona.cat/barcelonaeconomia/ca/mercat-de-treball/atur-registrat>

<https://dades.ajuntament.barcelona.cat/seguiment-covid19-bcn/>

<https://estimatdiari.barcelona/>

<https://www.lavanguardia.com/local/barcelona/20200422/48675173626/barcelona-prepara-un-gran-pacto-de-reconstruccion-ciudadana.html>

<https://www.20minutos.es/noticia/4234183/0/el-gobierno-de-barcelona-impulsa-un-pacto-de-ciudad-para-la-reactivacion-economica-y-social-tras-el-covid-19/>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취약계층에 보조금 및 바우처 지급

이탈리아 / 코로나19

이탈리아 정부는 3월 9일 격리지침 확대 시행 이후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큰 타격을 입은 프리랜서 등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를 위한 쇼핑 바우처 등을 지원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이탈리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현재 2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만 명이 넘었음
 - 이탈리아에서는 2월에 북부지방에서 감염자가 최초로 발생

방역대책 및 지원대책

-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3월 사회질서 유지 분야와 의료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및 외출금지 지침 등 시행
 -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수업도 중단
 -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
- 이탈리아 정부는 3월 17일에 발표한 ‘이탈리아 케어’ 법령에 따라 프리랜서에게 600유로(약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필품이나 식료품 구매를 위한 쇼핑 바우처를 지급
 - 1~2인 가구에는 300유로(약 40만 원), 3~4인 가구에는 400유로(약 53만 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0유로(약 66만 원) 지급
- 의료 분야 종사자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격리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예산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분야에 8,800만 유로(약 1,163억 원)의 예산을 사용
- 생계에 위협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벌금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을 일시 유예

- 격리 상태를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무료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도 제공

<http://www.mef.gov.it/focus/Decreto-Cura-Italia-cosa-prevede-per-le-famiglie/>

<https://www.comune.roma.it/web/it/scheda-servizi.page?contentId=BEC560368>

<https://www.comune.roma.it/romaiutaroma/it/supporto-psicologico.page>

<https://www.ordinepsicologilazio.it/coronavirus-psicologia-emergenza/>

서 동 화 통신원, dongwha.s@gmail.com

노약자·장애인 대상 방문 의료·배달 서비스 시행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코로나19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식료품 구매를 위한 쿠폰 제공,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임대료 지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반려동물 산책 및 보호 서비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방문 의료 및 생필품 배달 서비스 등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이탈리아 토스카나(Toscana)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4월 말 현재 8천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600명이 넘음
- 토스카나주의 주도(州都)인 피렌체(Firenze)시는 누적 확진자가 4월 말 현재 2,600명을 넘음

방역대책

-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3월 전국 봉쇄 및 전 국민 외출금지 행정명령을 내림
- 3월 9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계획되었던 외출금지가 감염증 확산이 멈추지 않음에 따라 5월 초까지 연장
- 식료품 구매, 업무상 및 건강상 이유, 반려동물 산책 등 필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 것을 명령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사는 동네를 벗어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
- 지역 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며, 필요시(본국으로 귀환, 병원 치료 등) 이동의 필요성을 기술한 자술서를 작성하여 지참
- 생필품 및 의약품 판매 상점(슈퍼마켓, 빵집, 약국 등)과 은행, 우체국,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산업 및 상업활동 중단(레스토랑 배달 서비스는 허용)
- 외출금지 위반 시 벌금을 3,000유로(약 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장기간의 경제활동 중단으로 국가경제 타격
-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명령으로 실물경제가 직접적 영향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GDP 하락 전망 등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 고조
- 관광업 및 서비스업 타격
 - 전시회와 행사가 연기 혹은 취소
 -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탈리아 전시행사(가구, 자동차, 와인, 패션, 관광 등)가 취소되어 GDP 0.4%p 하락과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
 - 호텔 영업 중지와 항공편 봉쇄로 관광 분야 타격
 - 관광산업은 이탈리아의 대표 산업 중 하나로 전체 GDP의 13.2%를 차지하며 1,460억 유로(약 193조 원) 규모의 산업
 -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 최대 명절인 부활절 특수를 앞두고 벌어진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최악의 관광수입 적자를 기록할 전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250억 유로(약 33조 원) 규모의 지원책 발표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600유로(약 80만 원)~800유로(약 106만 원)를 4월부터 3개월간 지급
 - 인터넷 플랫폼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등록을 하면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 총 4억 유로(약 5,300억 원)의 식료품구매 쿠폰을 각 州에 전달
 - 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
 - 모든 회사는 업무를 재개한 후 최소 두 달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해고 금지
 - 저임금 노동자에게 보너스 100유로(약 13만 원) 제공
 -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600유로(약 80만 원)의 바우처 제공
 - 유치원 등이 장기간 폐쇄됨에 따라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조
 - 대출금 및 월 임대료 납부 보조
 - 주택 대출금 납부기한을 최대 18개월 연장
 - 상업활동 금지 조치로 문을 닫은 상점에 대해 월 임대료의 60%(3월)를 국가에서 보조
 - 세금 납부기한 연장
 - 경제적 타격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관광, 외식,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 교육기관 등)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세금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5월에 최종 발표

○ 토스카나주의 지원정책

- 하루에 150만 개씩 마스크 무료 제공
 - 이 정책에 동의한 1,150개의 약국과 230개의 대형 슈퍼마켓에 마스크를 배부하여 하루에 개인당 최대 5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함
 - 횟수는 한 달에 6회로 제한
 - 한 달 동안 개인당 최대 30개의 마스크를 제공
- 식료품 구매를 위한 쿠폰 제공
 - 개인당 약 150유로(약 20만 원), 가구당 최대 500유로(약 66만 원) 제공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3개월간 월 임대료 300유로(약 40만 원) 지원
 -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지원되며, 수입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IO STO A CASA(‘나는 집에 머물러’) 캠페인 전개
 - 외출금지와 거리 두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접촉을 피하고 집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 소셜 미디어로 각자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해시태그로 공유
- ‘홈트레이닝’ 라디오 방송
 - 장기간의 외출금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스카나의 유명 라디오 채널과 협력하여 매일 오후 5시 ‘홈트레이닝’ 라이브 방송을 함
 -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과 활동을 알려주고 청취자들에게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반려동물 보호 서비스
 - 코로나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가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반려동물 산책과 보호 서비스를 시행
 - 토스카나주에 속한 각 도시의 적십자 자원봉사요원들이 방문하여 일정 기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방문 의료 및 배달 서비스
 - 장기간 지속되는 외출금지와 거리 두기로 인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음

- 이들에 대한 방문 의료 서비스와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음식과 필요한 약을 배달
- 홈페이지와 전화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이 신청 가능

<https://www.toscana-notizie.it/web/toscana-notizie/-/coronavirus-135-i-nuovi-casi-30-i-decessi>
<https://www.thelocal.it/20200318/coronavirus-the-financial-help-available-in-italy-and-how-to-apply>
<https://ambiente.comune.fi.it/dalle-redazioni/animali-domestici>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435>
<https://www.firenzetoday.it/economia/coronavirus-contributo-straordinario-affitto.html>
https://www.corriere.it/salute/malattie_infettive/20_marzo_03/coronavirus-italia-positivi-morti-bollettino-3-marzo-regione-regione-94d10106-5d67-11ea-ad92-9d72350309c8.shtml
https://www.comune.fi.it/dalle-redazioni/sostegno-agli-anziani-e-alle-persone-fragili?language_content_entity=it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중소기업·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프랑스 파리지 외 / 코로나19

프랑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봉쇄 및 전 국민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파리시는 市 소유 건물의 월세 감액 혹은 납부 시기 조정, 저소득층에게 식료품 구입비 지원, 시민 대상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및 방역대책

-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월 현재 1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
- 프랑스는 5월 10일까지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 연장
 - 직업상 이동이 필수적이거나 기초 식료품 구입, 병원 치료와 상담, 아동 및 가족 돌봄, 행정업무 등의 예외적인 경우와 한 시간 이내 반경 1km 내 이동만 허가
 - 이동을 원하는 경우 증명서(종이 증명서나 핸드폰에 pdf 파일 저장)를 소지해야 함
 - 약국, 병원, 시장, 식료품점 등을 제외하고 학교, 카페,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폐쇄
- 프랑스 전역의 학교는 5월 11일부터 단계적 등교수업 재개
 - 3월 16일부터 문을 닫았던 학교는 3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등교수업 재개
 - 5월 11일부터 유치원 그랑 섹션,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18일부터는 중학교 1학년과 4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등교수업을 진행하며, 25일부터는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재개될 예정
 - 한 클래스당 인원은 최대 15명으로 제한. 나머지 그룹은 자율학습, 화상수업, 운동, 문화 아틀리에 등 분리 수업 진행
 -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원격수업을 들어야 함
 - 일부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는 이른 수업재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0유로(약 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프랑스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 3월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2020년 3월 소득

- 이 전년도 70% 이하면 최대 1,500유로의 지원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급, 4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내는 사회분담금(cotisation)의 납부기한을 연기
- 전년도 기준 연간 소득신고액의 25%까지 국가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무이자 대출 가능, 1년 후에 대출금 상환
- 가구의 총소득에 부과되는 세액 공제를 결정

파리市的 지원책

- 마스크 220만 장 배부
 - 일차로 50만 장의 마스크를 의료기관이나 건강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배급
 - 파리에 위치한 30여 개 회사가 마스크를 공동 생산
 - 유럽에서는 마스크 기피 현상이 있었으나, 市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 市 소유 건물의 월세 감액 혹은 납부시기 조정
 -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월세 납부일자를 조정. 심각한 상황인 경우 지불유예 가능
 -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임차인은 소득 변화에 따른 월세 감액
 - 임차인의 구매력 증진을 위해 관리비 납부일자를 7월 이후로 연기
- 저소득층에게 가족수당기금(CAF)을 통해 식료품 구입비 지원
-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체육관 등을 숙박시설로 제공
- 파리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울증 증가 우려에 정신건강 상담 긴급연락처를 제공
- 병원 방문자 등은 시내 민영 지하철차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

<https://www.paris.fr/pages/coronavirus-les-mesures-prises-par-la-ville-7672>

<http://www.leparisien.fr/societe/blanker-evoque-un-retour-a-l-ecole-etale-sur-trois-semaines-21-04-2020-8303160.php>

<https://www.paris.fr/pages/aide-de-la-ville-aux-locataires-des-bailleurs-sociaux-7751>

김 나 래 통신원, kim.narae@kakao.com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배부

프랑스 보르도市 외 / 코로나19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누벨아키텐 지방의 보르도市는 정부의 권고보다 한발 앞서 면 마스크를 5월 1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배부. 또한 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 올해 초만 해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자재조달의 어려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영향이 미미하여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는 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
- 3월 들어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3월 중순에 이르러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아시아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
 - 유학생, 교민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프랑스인도 피해를 입음
- 정부의 권고로 볼 키스 인사, 악수, 포옹 등을 삼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
-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점차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출근을 삼가는 등 불필요한 이동을 줄임.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도 대폭 줄임
 - 3월 17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교육기관의 폐쇄 조치에 따라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많은 직장인이 재택근무 및 부분적 실업으로 전환
- 3월 중순경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생필품,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차츰 안정을 찾음. 그러나 밀가루, 빵, 쌀, 파스타 면 등 일부 품목은 물량 부족 현상
 - 이는 물류업종의 인력 부족으로 배송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
- 코로나 사태는 직간접적으로 산업경제 부문에 타격을 입힘
 - 무엇보다 호텔 등 관광업, 요식업 등의 타격이 큼
 -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지기 전부터 식당, 카페 등은 폐쇄조치 시행

방역대책 및 지원대책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감염자 ‘추적과 격리’ 전략을 시행했던 프랑스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응 전략을 수정

○ 첫째로 시간별기 전략

- 마스크, 진단키트, 병상, 산소호흡기 등이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프랑스는 최대한 감염병의 전파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의료시스템 붕괴 방지에 집중하고 부족한 의료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별기 전략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 이에 따라 학교, 식당, 공연장 등 폐쇄, 5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행정명령
 - 프랑스 전역에 이동통제조치를 단행해 마스크 등 의료물자 확보를 위한 시간을 버는 효과를 거둠

○ 둘째로 마스크,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 확보 전략

- 의류, 섬유, 제지 회사와 협력해 마스크 자체 생산에 돌입하고, 부족한 공급량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충당. 이로써 의료기관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가능해짐
 - 일반인들의 마스크 착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방역당국은 4월 중순 들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전파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으로 전환
 - 의료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고, 일반인은 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
- 코로나19 검사건수를 크게 늘리고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 시행
-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는 5월 11일부터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시행

○ 셋째로 경제 분야 지원책 시행

- 프랑스는 실업자 폭증을 우려하여 ‘부분적 실업 제도’ 도입
 -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임시 실직 상태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월급의 84%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지원, 회사의 재정난을 막기 위한 임대료 지원, 대출금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치 시행

○ 지자체마다 상황에 맞는 세부조치를 시행,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과 동일

- 방역
 - 보르도시는 정부의 권고보다 한발 앞서 면 마스크를 대량 주문해 5월 11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배부
 - 이동제한명령이 해제되면 주당 15만 건의 검사건수를 50만 건으로 대폭 늘려 유증상자는 물론 접촉자까지 검사하여 격리 시행. 감염병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식 추적시스템 도입

- 경제: 누벨아키텐에서는 기업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 교육
 - 행정명령에 따라 3월 중순에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음. 학생들은 집에서 교사들이 낸 과제를 수행하는 등 홈스쿨링 시행. 교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진도를 확인
- 향후 계획
 - 이동제한조치 해제 이후 마스크 착용, 코로나 검사, 감염자 격리, 접촉자 추적 등 후속조치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
 -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nouvelle-aquitaine/infographie-point-du-19-avril-3-973-cas-coronavirus-nouvelle-aquitaine-247-deces-debut-epidemie-1797764.html>

<https://www.nouvelle-aquitaine.fr/toutes-actualites/coronavirus-region-prend-mesures-urgence.html>

<https://www.nouvelle-aquitaine.ars.sante.fr/covid-19-quelle-strategie-de-depistage-covid-19-en-nouvelle-aquitaine>

<http://www.bordeaux.fr/p141009/confinement-coronavirus>

‘코로나19’ 관련 세계도시동향 기(既)게재원고

〈475호〉

홍콩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지급	29
이탈리아	모임·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31

〈474호〉

상하이市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파악 위해 지하철 탑승정보 등록 권장	33
------	--	----

〈473호〉

상하이市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36
상하이市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 권장	40
다롄市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발표	42

〈472호〉

항저우市	보건용 마스크 신청자에게 매일 일정 수량 무료 배송	44
우한市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46
상하이市	마스크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강력 처벌	49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지급

홍콩 / 사회·복지 / 475호(2020.4.13)

홍콩특별행정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등 9개 업종의 소상공인과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배경

- 홍콩 입법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250억 홍콩달러의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2020년 2월 21일 통과시킴
- 코로나19 관련 구제기금이 조성된 이후 홍콩의 관련부처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과 시민들이 조속하게 혜택을 받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구제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식품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2020년 3월 5일 발표

주요 내용

- 보조금 신청대상
 -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
 - 일반 음식점, 수상 음식점(marine restaurants), 공장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게는 20만 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
 - 간이음식점(light refreshment restaurants), 신선식품점(fresh provision shops), 식품공장, 제과점, 씨우메이(燒味)¹⁾와 루웨이(滷味)²⁾ 음식점 허가를 받은 업주에게는 8만 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
 - 노점상 허가를 받은 업주에게는 5,000홍콩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
- 보조금 신청조건
 - 2020년 2월 14일 이전에 환경보호국에서 발행한 영업 허가증을 보유할 것
 - 보조금 신청일에 영업 중일 것

1) 홍콩식 BBQ를 총칭하는 말

2) 루웨이(滷味)는 간장을 넣고 오랜 시간 푹 삶은 요리를 말함

- 보조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보조금 승인일까지 허가를 양도, 반환,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을 것
-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보조금 신청 기간은 3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개월임
 - 보조금 신청서는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음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보조금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여 신청서 수령 확인서 및 신청 번호를 전달
 - 홍콩 식품환경위생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신청서를 처리하고 승인하며, 적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https://sc.isd.gov.hk/TuniS/www.info.gov.hk/gia/general/202002/21/P2020022100713.htm>

https://www.fehd.gov.hk/tc_chi/events/Anti-epidemic_Fund/index.html

<https://sc.isd.gov.hk/TuniS/www.info.gov.hk/gia/general/201909/30/P2019093000287.htm?fontSize=1>

문 해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모임·외출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이탈리아 / 사회·복지 / 475호(2020.4.13)

이탈리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임 및 외출 금지, 요식업소 영업시간 단축,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강화

배경

- 이탈리아 내에서는 2020년 2월 20일을 기점으로 북부지방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감염 및 사망 사례가 급속도로 증가
 - 초기에는 롬바르디아를 포함한 북부지방 14개 시도에만 적색경보가 울렸는데, 이 경보는 3월 9일 긴급 발표된 ‘#나는집에남는다’ 법령으로 대체
 -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를 앞당겨서 4월 7일 시행하기로 결정

대책의 주요 내용

- 공공장소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을 금지
 - 공공장소든 민간 소유 공간이든 스포츠행사, 음악회, 종교행사,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모임을 금지
- 직장 출근이나 건강상의 이유(병원, 약국 방문) 외에는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가족당 한 사람에 한해 외부 출입을 허용
 - 집 밖에서 검문을 당하면 외출 사유를 적은 자술서를 보여주어야 함. 자술서의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최대 3개월의 구금 및 최대 206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열, 기침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외출금지 위반뿐 아니라 상해 또는 의도적인 상해 시도로 보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음
 - 노인이나 건강상 위험한 사람에게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고의적인 살해 행위로 간주하여 2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는 허용. 노인들은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인구

집단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바와 레스토랑 같은 요식업소는 각별한 위생규칙과 대인(對人) 안전거리 1미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을 허용
 - 배달 서비스는 오후 6시 문을 닫는 시간 이후에도 허용
- 뷰티센터, 이·미용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시간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음
-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출석이 4월 3일까지 금지. 대신 각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음
 - 4월 7일 의사면허 국가고시가 있는 관계로 대학 정규과정 이후 강의에 한해 위 금지조항에서 제외
- 관공서는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대민(對民) 업무 수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함

<http://www.governo.it/it/articolo/firmato-il-dpcm-9-marzo-2020/14276>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0/03/09/20A01558/sg>

<http://www.governo.it/it/articolo/decreto-iorestoacasa-domande-frequenti-sulle-misure-adottate-dal-governo/14278>

<https://static.gedidigital.it/repubblica/pdf/2020/cronaca/nuovomodulo.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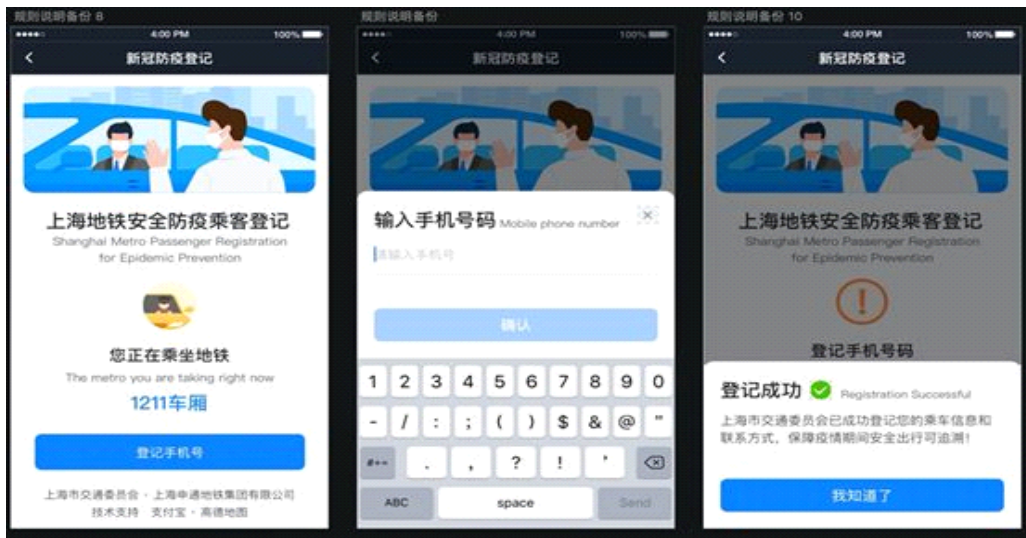
<https://www.miur.gov.it/web/guest/-/coronavirus-il-7-aprile-gli-esami-per-l-abilitazione-alla-professione-medica>

서 동 화 통신원, dongwha.s@gmail.com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파악 위해 지하철 탑승정보 등록 권장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 474호(2020.3.23)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밀접접촉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철 탑승정보를 등록하도록 권장



[그림 1] 상하이시 지하철이용객 탑승정보 등록 화면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6189689

배경 및 목적

-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지하철을 탑승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하철 탑승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관련 부처에서 밀접접촉자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市는,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주요 내용

○ 정보등록방법

- 시민들은 지하철에 탑승한 후 정보 등록을 위해서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음. 본인의 지푸바오(支付宝) 혹은 웨이신(微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음
-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지하철 객실 중앙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자신의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됨. '등록 성공(登记成功)'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등록이 완료된 것임
- 시민들은 지하철에 탑승할 때마다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환승하거나 탑승 후 객실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추가 등록이 필요

○ 특징

- 하나의 휴대폰으로 많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음
 - 만약 휴대폰이 없거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민은 같은 지하철에 탑승한 승객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탑승 정보를 등록할 수 있음
- 市는 시민들이 등록한 개인정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사용
 - 시민들이 등록한 개인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예정
- 市는 지하철 내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탑승정보를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등록을 시도해줄 것을 요청
 - 시민들은 정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핫라인 64370000에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할 수 있음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바쁜 출퇴근 시간에 객실마다 한 개씩 부착된 QR코드를 찾아서 등록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객실에 여러 개의 QR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이와 관련하여 市는 지하철 객실에 승차 안내문, 지하철 노선도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부착되어 있어서 여러 개의 QR코드를 부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상하이시 지하철의 QR코드는 지푸바오(支付宝)에서 제작해 부착하고 있는데, 2020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일부 지하철 노선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 市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지하철 객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 시 탑승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그림 2] 상하이시 지하철 객실 내에 부착되어 있는 QR코드의 모습

출처: http://k.sina.com.cn/article_6145283913_16e49974902001047y.html

http://3g.163.com/news/article_cambrian/F6GBDKOR055040N3.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59768860291124720&wfr=spider&for=pc>

http://www.cnr.cn/shanghai/tt/20200228/t20200228_524995721.shtml

<http://sh.sina.com.cn/news/m/2020-02-28/detail-iimxxstf5055177.shtml>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중국 상하이市 / 사회·복지 / 473호(2020.3.2)

중국 상하이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020년 2월 발표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

배경

- 상하이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춘절 연휴 연장, 2월 9일까지 기업체의 업무 개시 금지, 市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대해 2월 말까지 방학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감염방지 관련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 아울러 市는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임대료감면,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
- 나아가 市는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월 12일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당부

주요 내용

- 첫째, 市로 들어오는 각종 진입로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
 - 공항, 기차역, 상하이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水路)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
 - 상하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
 -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관찰을 실시
 -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관련 정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함
 - 상하이에 주거지나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상하이로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
- 둘째, 관할지역의 방역책임을 명확하게 함
 - 각 구(区), 가도(街道), 진(鎮)정부는 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
 - 주민위원회는 상하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관리 및 통제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인원확인 및 감염 의심환자 조사 등을 실시

- 셋째,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관리를 철저히 함
 - 주민·촌민 위원회, 주택단지 관리업체는 주택단지(혹은 촌)의 출입구를 엄격하게 제한 및 통제
 - 출입구에 검사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강화
 -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등록 및 체온측정을 실시
 -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
 -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
 - 택배나 음식배달 등은 무접촉 배달 방식을 취해야 함
 -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달원이 물품이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고객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 등을 수령
 - 관리업체가 없는 주택단지에서는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
- 넷째,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및 관찰을 실시하고, 외부 출입을 금지
 - 발열증세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진찰 및 검사를 실시
 - 격리관찰 등 방역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움
 - 위생건강부서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
 -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이 격리관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실시
- 다섯째, 건강정보 등록과 확인을 강화
 -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등록한 건강정보를 면밀하게 확인
 - 개인의 감염병력, 감염증 발생지역에서 여행한 이력,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및 관찰을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 국가 및 상하이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등록
- 여섯째, 업계 방역규범을 철저하게 실시
 - 상하이를 방문하거나 상하이로 복귀한 사람 가운데 교육, 보육, 의료, 가사 관리, 간호 및 노동집약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관리조치를 실시
 - 격리관찰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직장에서 격리가 가능하면 직장에서 격리하고, 주거지가 있으면 자택에서 격리

-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각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집중격리시설에서 건강관찰을 실시. 다만, 이 경우에는 직장 혹은 개인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물류, 택배, 대중교통, 택시 등의 업체 종사자는 직장에서 격리를 주관
- 자택이나 집중격리시설에서의 관찰기간은 상하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임
- 직원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서는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함
- 일곱째,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강화
 - 출퇴근 첨두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최소화
 - 역이나 정류장을 출입하는 인원을 분산하고 승차대기로 인한 인원의 밀집도를 낮추도록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집중되면 임시열차 등을 증설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승객의 밀집도를 낮춤
- 여덟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시내버스, 통근버스, 페리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중교통수단의 청소 및 소독, 통풍 및 환기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 지상 대중교통과 페리에서는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지하철은 운행 중 환기시스템을 작동하고, 역에서는 24시간 환기시스템을 가동
- 아홉째, 공공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시행
 -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료위생기관, 상업시설,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함
 - 각 시설 담당자는 시민이 협조를 거부하면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함
 - 공공장소의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출입문의 손잡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매일 정기적으로 소독
- 열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
 - 건축공사현장 입구에 건강관찰소를 설치해 건축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
 - 건축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 및 건강상황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매일 보고하는 긴급 보고 시스템을 운영

- 건축공사현장의 관리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
- 정기적으로 주요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열한째, 러시아워를 피하도록 시차 통근제 권장
 -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으로 시차 통근제를 실시하도록 권장
 - 탄력근무와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장려
 - 경찰 및 교통관리부서는 시민들의 자가운전을 통한 외출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

http://www.legaldaily.com.cn/government/content/2020-02/11/content_8114626.htm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424187.html?phlnohdjmgIngdbi>

문 해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 권장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 473호(2020.3.2)

중국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지휘부는 교통이 혼잡한 첨두시간대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도록 권장하는 통지를 2020년 2월 발표

배경

- 상하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 지휘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도록 기업들에 권장
 - 춘절 연휴 이후 기업의 업무 재개를 앞둔 2020년 2월 9일 교통이 혼잡한 첨두시간대를 피해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제 도입을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지문을 발표

주요 내용

- 상하이시 행정구역 내 각 기관 및 기업 등에서는 상하이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이 급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기업은 생산 및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전염병 발생지역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하이로 복귀하는 시기를 늦추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전염병 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직원들도 상하이로 복귀하는 것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빌딩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기업 직원들이 러시아워를 피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구역별, 층(層)별, 업체별,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함
 - 각 사무실 독자적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난방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사무공간의 환기조건을 개선하도록 함
- 각 기업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차 통근제를 도입하도록 권장
 - 대형 도소매 기업은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단축
 - 일반 무역서비스 기업 및 외식업체는 개점 시간을 적절하게 늦춤

- 일부 생활서비스 기업은 오후부터 영업을 시작
- 과학연구, IT 등의 업종에는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직무별 근무시간대 분리, 출근시간 로테이션을 권장
-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풀 고정 파트너를 정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함
 - 여건이 되는 기업에서는 출퇴근 차량을 증설
 - 통근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노선은 일정한 승객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버스 제도를 운영
- 러시아워에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 편성
 -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빈번하게 접촉하는 부분을 자주 소독
 - 버스와 지하철 운행 중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지하철 내부에서는 가능한 한 이동하지 않도록 함

향후 전망

- 상하이市 소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상하이에서는 두 차례 연장된 춘절 연휴가 끝나고 2월 10일부터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했지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065857172834822&wfr=spider&for=pc>

음식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발표

중국 다롄市 / 사회·복지 / 473호(2020.3.2)

중국 다롄(大連)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지휘부는 감염병이 음식점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 자체 위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2020년 2월 발표

배경 및 목적

- 중국 다롄(大連)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지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기간 동안 市 전체의 외식서비스 경영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를 2020년 2월 12일 발표
 - 이 조치는 감염병이 음식점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주요 내용

- 감염병 방역기간 동안 다롄(大連)시의 모든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점 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음
 - 테이크아웃 서비스와 인터넷 및 전화 주문을 통한 배달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음
- 음식을 담는 용기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고, 배달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함
 - 배달원의 체온을 매일 측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음식점 경영자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밀봉하여 음식 배달 중에 생길 수 있는 전염병 발병 위험과 음식물의 오염을 방지해야 함
- 각급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함), 기관 및 기업에서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밀집해서 식사할 수 없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기업체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함
 - 식사 인원이 비교적 적고 인원을 분산시켜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밀집하여 식사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서는 식사시간을 연장하거나 식사시간대를 나누어 식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직원들이 분산하여 식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부서별 등으로 시간대를 나누어 식사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하는 방식 등을 활용
-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식사 시 사람 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직원들의 '셀프 배식'을 금지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식사하지 않도록 함
- 모든 종류의 식기는 전담인원이 철저히 소독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식당 공간을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소독해야 함
- 식당과 탕비실은 소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정수기, 커피메이커, 전자레인지 등 공용시설을 수시로 소독해야 함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유의해야 함

정책 평가 및 전망

- 현재 다롄市 외에도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산업이 당분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

http://dl.cnr.cn/jrdl/20200212/t20200212_524972074.shtml

보건용 마스크 신청자에게 매일 일정 수량 무료 배송

중국 항저우市 / 사회·복지 / 472호(2020.2.17)

중국 항저우市는 2020년 2월부터 의료보장국 위챗(wechat) 공중계정에서 마스크 예약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매일 일정 수량 마스크 신청 예약을 받아서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시 중

배경

- 중국 우한市에서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도 폭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중국의 각 지방정부에서는 마스크 구매 및 보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주요 내용

- 항저우市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지휘부는 2020년 2월 1일부터 市 의료보장국 위챗(wechat) 공중계정에서 마스크 예약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발표
 - 市는 의료보장국 위챗 공중계정의 마스크 예약등록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일 일정 수량의 마스크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들이 예약한 마스크를 다음날 업무시간에 지정된 약국에서 무료 배포하기로 발표
 - 시민들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한정수량으로 마스크 신청 예약을 할 수 있음
 - 당일 예약 접수가 가능한 마스크 물량이 소진되면 위챗 공중계정 마스크 예약 등록 시스템의 예약기능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날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예약 기능이 활성화됨
 - 마스크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 개개인이 10일에 한 번씩 마스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고, 한번에 5개의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음
 - 마스크 신청을 예약한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지정된 약국에서 마스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발표

- 그런데 市는 발표 직후 이 조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마스크를 신청한 시민에게 직접 배송하기로 계획을 변경
 - 다수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수령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집결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
 - 또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의 위챗 기능을 활용하여 마스크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기
 - 이에 市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지휘부는 정책 발표 3시간이 경과한 후 ‘마스크 예약 발급에 관한 보충설명’을 발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마스크를 예약한 시민들에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市는 향후 전염병 예방통제 진척 상황 및 마스크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을 조율해 나갈 예정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380856659684827&wfr=spider&for=pc>

<https://new.qq.com/rain/a/20200201A0LOOV00>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중국 우한시 / 사회·복지 / 472호(2020.2.17)

중국 우한시는 2020년 1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경로를 차단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배경

- 2020년 1월 2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상 을류 전염병(乙类传染病)으로 규정하고, 갑류 전염병(甲类传染病)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 을류 전염병은 사스와 메르스에 해당하는 전염병을 의미하고, 갑류 전염병 수준의 예방 및 통제 조치는 흑사병과 콜레라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의미
- 이에 우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 지휘부를 설치하고, 2020년 1월 22일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市の 모든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
 - 이 조치는 市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중화인민공화국돌발사건 대응법, 공공위생사건돌발응급조례,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 등에 근거해 실시
 - 市는 공공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경로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이 조치는 2020년 1월 22일부터 실시되며, 종료일자는 市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

주요 내용

- 우한시의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임직원은 근무시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우한시의 공공장소 사업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각 건물 입구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함
 - 시민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공공장소에 출입하도록 해야 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과 공공장소위생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자를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주관부서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법에 근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市는 공공장소를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관할하는 관련 부서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 市는 다음과 같이 공공장소를 8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표
 - ① 호텔, 여관, 게스트하우스, 커피숍, 술집, 식당
 - ② 대중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 ③ 영화관, 비디오방, 오락실, 무도장, 콘서트홀
 - ④ 체육관, 수영장, 공원
 - ⑤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⑥ 상점, 서점
 - ⑦ 병원 진찰실, 대합실, 대중교통수단
 - ⑧ 기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돌발사건응급처리요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에 저촉되며,公安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음
- 다른 도시로 대책이 전파되어 현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실시
 - 우한市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한 이후 광둥(广东), 장시(江西), 쓰촨(四川), 난징(南京) 등의 도시에서도 이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
 - 상하이市는 상하이 박물관, 상하이 대극장, 디즈니랜드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와 일부 관광지를 폐쇄하기로 결정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의 제안

- 현재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그중에서 국무원 의료개혁 자문위원인 베이징대학 리링(李玲) 교수는 우한市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
 - 인터넷상에 전염병 상담 플랫폼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환자들이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인터넷 의료, 원격 의료 센터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터넷 전염병 상담 플랫폼과 핫라인을 개설
 - 의료진을 활용해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24시간 관련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
 -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
 -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 대한 정보와 치료시설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전문가를 활용하여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발표한 진료지침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급
 -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적시에 선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지역별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임시 진료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환자들이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을 예방
 - 각 지역의 환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진료소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증세가 아주 위중한 환자와 가벼운 환자를 분류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 환자 분류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
 -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환자 상황에 맞는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증세가 아주 위중한 상태의 환자는 격리하여 집중 치료
 - 병원 내 대량 교차감염 사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증세가 가벼운 상태의 환자가 자택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 의의료진, 단체 등을 활용해 환자가 자택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증세가 가벼운 상태의 환자를 간호하는 방안 및 사례를 방송하여 시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진료와 재활관리 방안, 간편한 장비, 의약품 공급 및 배송 등을 지원
- 현재 실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통제사업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주민들의 공포심을 줄이고 환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656454338678730984&wfr=spider&for=pc>

http://www.wuhan.gov.cn/hbgovinfo/zwgk_8265/szfxgkml/fggw/gfxwj/202001/t20200123_304117.html

<http://www.maoflag.cc/portal.php?mod=view&aid=7857>

마스크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강력 처벌

중국 상하이시 / 사회·복지 / 472호(2020.2.17)

중국 상하이시는 2020년 1월 23일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문’을 발표. 이를 통해 시는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위생용품의 매점매석, 가격 및 물가 인상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배경 및 경과

- 최근 중국 상하이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품절되는 상황이 발생
- 이에 2020년 1월 21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통제업무에 관한 통지’, ‘전염병 통제 관련 상품 가격 감독 및 검사에 대한 긴급 통지’를 발표
 - 시 소재 슈퍼마켓과 대형 매장, 약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위생용품의 가격 감독과 검사를 실시
 - 시장 관리감독부서는 관할 지역의 의약품 소매 기업, 주요 슈퍼마켓 등을 검사하여 삼무상품(三无产品: 생산 허가증, 상품 검사 합격증, 생산업체와 생산지 표시가 없는 상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의약품 및 방호용품의 시장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각급 시장 관리감독부서가 시장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
 - 첫째, 각급 시장 관리감독부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약품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마스크 가격 인상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둘째,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문’을 발표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셋째,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신고접수된 사안은 엄중하게 처리하여 가격 및 물가인상을 억제
 - 매점매석,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엄중한 사례를 공개

- 2020년 1월 23일 市 시장감독관리국은 ‘마스크 등 전염병 예방 퇴치 관련 상품의 가격 경고’를 발표
 - 市는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가격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경고
 - 업계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상품을 제공하도록 함
- 정책의 법제도적 근거
 - 市 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과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 등이 부정한 가격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발표

주요 내용

- 사업자 및 경영자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하기로 함
 - 사업자 및 경영자가 가격인상 정보를 날조 및 유포하여 가격을 올리고 제품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조장하는 경우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경영자가 상호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정하고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가하는 경우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 사업자 및 경영자가 허위 혹은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기만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행위
 -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한 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위법한 소득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매우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를 명할 수 있음

정책 전파 현황 및 평가

- 현재 상하이市 이외에도 베이징이나 난징 등 많은 도시에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발표
 -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市 차원에서 시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

<https://baijiahao.baidu.com/s?id=1657135183450458110&wfr=spider&for=pc>

<http://finance.china.com.cn/zgfb/20200123/5180620.shtml>

<https://3w.huanqiu.com/a/0c789f/9CaKrnKp1U8?agt=8aaaaa28>

문혜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476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5월 11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